

# 교육 개선을 위한 단과대학 교무부학장과의 좌담회

## 특집

- 일 시 : 2007년 9월 17일(월), 18일(화) 12시 ~ 1시
- 장 소 :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회의실(301호)
- 주 제 :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 안내 및 교육 개선을 위한 좌담회
- 참석자 : 양호환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교무부처장), 민혜리(교육지원부 연구교수), 이희원(학습지원부 연구교수), 이혜정(이러닝지원부 연구교수), 이수형(글쓰기교실 선임 연구원), 홍혜리나(글쓰기교실 연구원), 정유진(글쓰기교실 연구원)

### 9월 17일 참석자

김영환 부학장(자연대학)  
김병도 부학장(경영대학)  
김중섭 부원장(국제대학원)  
이건우 부학장(공과대학)  
권훈정 부학장(생활과학대학)  
윤희정 부학장(수의과대학)

### 9월 18일 참석자

김창민 부학장(인문대학)  
김재영 부학장(사회과학대학)  
홍준형 부학장(행정대학원)  
김춘수 부학장(미술대학)  
조병훈 부학장(치과대학)

## 1. 단과대학과의 협력의 틀 마련

**양호환(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 오늘 이렇게 모이신 건 CTL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지원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조언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단과대학별로 특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글쓰기

※ 좌담회 진행 방식은 교수학습개발센터 부서별 교육 프로그램 안내(교수자, 학부학생, 대학원생 대상 교육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각 단과대학과의 협력 사례 소개)와 각 단과대학별 교육 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 전달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다음의 내용은 양일에 걸쳐 진행된 좌담회 내용을 주제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상담, 학습지원 등 이런 서비스가 본인이 속한 전공이나 단과대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단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서 우리 지원 분야를 구체화하고 내실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학장님들께서 지금까지 CTL과 관련된 부분에서 느꼈던 문제점, 개선할 수 있는 부분, 혹은 향후 함께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국제대학원 부원장)** : 저도 CTL에 여러 번 접속을 해서 내용도 보고 나름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국제대학원이기 때문에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고 학생들도 영어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나 특강을 할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한 두 명만 있어도 영어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어로 강의를 하는 데 있어 공통된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잘 안되는 부분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영어로 하다보면 말이 막혀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국제대학원에서도 영어로 액셀 특강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저 잘하는 학생들이 가끔 하는 정도입니다. 만약 CTL에서 담당해 준다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도(경영대학 부학장)** : CTL에서 하는 일을 크게 나누면 교수들을 위한 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학교일에 정통하신 분들로 이런 프로그램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서울대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CTL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용도 측면에서 어떻게든 강제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아도 홍보가 안 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갖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확 와닿는 게 없어서, 또는 급하지 않으니 항상 뒤로 밀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홍보 차원의 문제라면 저희 교무부학장도 교수회의에 가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콘텐츠 자체의 문제라면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강의를 4년 동안 했는데 그때도 이런 게 있었지만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절실히 필요치 않으신 거거든요. 좋은 일 한다는 정도는 그냥 감으로 아시지만 그다지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양호환(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 저는 방금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인지, CTL이 필요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너무 많이 벌여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업무에 더욱 집중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만한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홍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서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근거로 서비스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혜정(교수학습개발센터 e-Learning지원부 연구교수) : 프로그램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이메일, 공문 발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재영(사회과학대학 부학장) : CTL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포트 작성법, 영문 논문 작성법 워크숍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고 이런 내용들은 BK사업단에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수요를 찾아 거기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서비스 해주시면 금방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홍보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양호환(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 단대에서 회의 하실 때 혹시 의제가 적은 날 저희가 CTL 주요 업무 소개를 위주로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홍보 부족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효율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는 많은데 잘 활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

어서 별로 호응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해 정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피드백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CTL이 꼭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서비스의 명분만 있지 내용이 없는 업무들은 정리를 하고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할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홍준형(행정대학원 부학장)** : 홍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홍보 혹은 기관 중심의 접근은 어렵고 아무리 해봤자 실제 수요하고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CTL에서 제공하는 가장 파워풀한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서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푸시 서비스’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들께 파워포인트 작성법이나 파워포인트 템플릿들을 이메일로 보내준다거나 집중적으로 ‘서비스 온 디맨드’ 방식의 서비스들을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알찬 서비스들을 정기적으로 챙겨주고,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식의 수요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고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홍보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2. 강의 공개(open coursework)와 강의 질 향상

**윤희정(수의과대학 부학장)** : 이제 CTL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95년도에 코넬대학에 갔더니 거기선 강의를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강의 자체를 비디오로 만들어서 그걸 학생들이 보게 하고 교수는 시간을 정해서 개별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문제는 시간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학습 효과는 굉장히 떨어져서 다시 강의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의가 인터넷상으로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과연 학생들이 강의를 얼마나 잘 듣고 잘 소화해서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혜정(교수학습개발센터 e-Learning지원부 연구교수)** : 오프라인 강의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의 질적 향상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자료를 혼자 집에서 공부하게 하고 수업시간에는 그 다음부터 그것에 대해 모르는 것을 질문하게 하거나, 아니면 수업 내용을 모두 찍어서 올리는 경우, 거의 100% 복습용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2회에서 5회 정도 학생들이 반복 학습한다고 합니다.

**김종섭(국제대학원 부원장)** : 제가 예전에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하버드 대학의 강의계획서가 모두 검색되고 링크도 되어있더군요. 물론 대부분 들어갈 수도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숙제에 대한 해답이나 자료 등은 패스워드를 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홈페이지도 공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가끔 영국에서 이메일이 옵니다. 강의계획서까지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포맷으로 보기 좋게 링크도 걸어놓으면 이용이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김재영(사회과학대학 부학장)** : CTL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은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디지털 화해서 DVD나 영상 매체로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공개하겠다고 하지 말고 서울대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권한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도 드리고, 비용도 좀 드리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민혜리(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연구교수)** :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서관에 촬영요청을 해서 도서관 DB에 올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개할 수도 있고 교내에서만 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강사가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제도들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훈(치과대학 부학장)** : 저희 경우는 인트라넷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업 관련 내용이나 과제도 다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속도가 느리다보

니 잘 안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의도 강의지만 실습 같은 것은 한 시간 내내 설명을 해도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실습하는 것을 5분만 보여주면 전체가 이해가 다 되거든요. 학생들이 가장 유용하게 느끼는 것이 실습인데 자체 내에서 아무리 촬영을 해도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게 잘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실습하는 것을 근접해서 촬영해서 수업시간에 제공해주면 학생들이 그걸 한 번 보면 몇 시간 수업을 한꺼번에 듣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처럼 각 대학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부처장님께서 교무부학장들 모였을 때 각 대학별로 필요한 항목들을 제시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의 서비스들을 특성화해서 키울 분야는 키우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형(행정대학원 부학장)** : 서비스 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요 조사를 한 번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조병훈(치과대학 부학장)** : 강의 베이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콘텐츠 베이스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수달의 생태, 임플란트 보철 수술을 아카이브로 해서 DB화 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과대학의 경우 50개의 competency를 통과해야 하는데 50개를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 1년을 잡아서 계획을 세우고 담당할 사람을 각각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호환(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 저희 센터에서 하는 서비스가 사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그 요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지 논의를 하고 단과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단과대학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 3. e-TL 활용 어떻게 할까?

**홍준형(행정대학원 부학장)** : 요즘 교수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e-TL을 처음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e-TL 강의를 신청해야 한다면 부담을 느끼거든요.

**이혜정(교수학습개발센터 e-Learning지원부 연구교수)** : 서울대 e-Learning정책은 기본적으로 블렌딩입니다. 블렌딩의 의미는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든 그렇지 않든 강의는 개설되고 학생들도 수강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시스템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전 강좌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개설됩니다.

**권훈정(생활과학대학 부학장)** : 처음에는 eClass가 있었고 기능이 보완되어서 e-TL이 개발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 저희 나이는 한 가지에 익숙해지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간신히 e-Class를 써볼까 했더니 다시 바꾸어서 정신없게 만드시고 여러 학기가 지났음에도 너무 기능이 많아서인지 참 익숙해지지 않는 시스템이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말은 못하겠는데 참 가깝게 와 닿지 않아요. 너무 복잡해요.

**이혜정(교수학습개발센터 e-Learning지원부 연구교수)** : 현재 학내 구 성원 중 많은 사람들이 e-T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TL의 장점은 회원 가입을 따로 안하고 권한도 따로 맺지 않고 학생들이 포탈에 로그인하면 수업 내용들이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이용 비율은 e-TL을 쓰기 이전 eClass의 경우 작년 1학기에 전체 강의 중 10%였고, 작년 2학기 처음 e-TL을 시작했을 때는 36%, 2007년 1학기가 6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자연대학 부학장)** : e-TL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혜정(교수학습개발센터 e-Learning지원부 연구교수)** : 글도 쓰고, 자료도 공유할 수 있고, 문자도 무료로 보낼 수 있고 사진도 올릴 수 있습니다. 청강생일 경우 교수님이 승인을 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우(공과대학 부학장)** : 저희 공과대학에서는 오픈 코스라고 해서 강의록을 완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여기에 링크를 걸어서 교수학습센터 website에 왔을 때 그것도 함께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정(교수학습개발센터 e-Learning지원부 연구교수)** : 저희 e-TL에도 공개강좌가 있습니다. 공대의 오픈코스도 저희 e-TL 공개강좌에 링크를 걸어서 보다 다양한 대상들에게 공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자연대학 부학장)** :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보다 젊은 선생님들을 타깃으로 하였던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차피 익숙해진 것들이 있으셔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005년부터 1년간 외국 대학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선 이걸 통하지 않으면 성적입력은 물론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저도 여기서는 이용하지 않다가 거기서는 이용했었는데 해보니 편리하더군요. 특정 학생한테 전달할 내용이 있을 때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젊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평가 점수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훈정(생활과학대학 부학장)** : 그렇게 강제성을 띠려면 이것을 이용하는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강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영환(자연대학 부학장)** : 제 생각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라는 것이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학습 보조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 이것만 의존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완전 대체를 하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성적 같은 것들을 여기서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e-TL 사용을 유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호환(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 성적 입력의 문제는 지금 전산원의 데이터와의 연동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을 하는 것과 전산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섭(국제대학원 부원장)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할 때 아마도 이걸 하면 조금 더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입관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8년 전부터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료를 올리고 파워포인트도 띄우고 논문 쓰는 법에 관해서 링크도 걸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홈페이지에 와서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게 해놨거든요. 학생들이 굉장히 자주 들어와요. 그리고 게시판도 원래는 외부게시판을 썼는데 이제는 국제대학원에서 따로 게시판을 할당해 주어서 그냥 한번 클릭하면 들어가서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해놓았거든요. 물론 그러다보니 스팸이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 편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아예 다운로드를 받거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도 패스워드도 입력하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카페입니다. 가장 익숙한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e-TL으로 들어오면 그거 불편하다고 여기는 거죠. 또 학생들이 자신들끼리 하는 일에 대해서 교수가 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만약 강제성을 띠게 한다면 억지로 이쪽에 만들긴 하겠지만 여전히 다른 카페에서 자신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윤희정(수의과대학 부학장) :** 인터넷 창을 열면 e-TL이 제일 먼저 열리는데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

거든요. 잘 모르니까요. 물론 젊은 세대들은 PC를 워낙 잘 다루니까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연세 드신 교수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제 강의록을 홈페이지에 띄우고 공개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실 그걸 어떤 포매이션을 가지고 띄워야하는지 몰라서 아직 그대로 몇 년을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양호환(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 그런 불편함과 어려운 부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도우미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홍준형(행정대학원 부학장) :** 보통 우리가 하는 오프라인 강의 내용 중에 e-TL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도움이 가능한가요?

**이혜정(교수학습개발센터 e-Learning지원부 연구교수) :** 보통 오프라인 강의를 하시고 그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eTL에 올려놓으시면 학생들이 집에 가서도 볼 수 있고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수업시간에 질의, 토론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e-TL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수업은 그대로 하면서 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다 못하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동영상 자료 제작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해드리기도 합니다. 동영상 멀티미디어 이외에 파워포인트 등의 자료를 제작해 드립니다.

#### 4. 학생 지원

**양호환(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 다른 주제도 다루었으면 합니다. 먼 저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좀 부추겨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교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리포트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 한번은 글쓰기교실의 상담을 받고 오라고 요구한다면 최소한 맞춤법이라도 교정을 받아 올 것입니다. 물론 전반

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심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우(공과대학 부학장)** : 석사논문 같은 것들을 지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다 치고 형식부터 엉망인 논문들이 참 많거든요. 참고 문헌이나 인용하는 법들도 틀린 경우가 많고,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라도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훈정(생활과학대학 부학장)** : 아주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모든 대학원생들이 필수로 듣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호환(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 CTL 활용 사례를 소개드리면, 지금 공대 전기공학부에서 논자시를 볼 때 CTL에서 주최하는 워크숍 강좌를 반드시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듣는 바람에 업무량이 증가하여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CTL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게 해주 시면, 현수막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워크숍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들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대학원생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소개해 주십시오.

**이건우(공과대학 부학장)** : 기초교육원에서는 영어글쓰기를 지도하기 위해 글쓰기 상담 분소를 열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동학술관 자료관에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글쓰기교실에서도 논문 지도 등을 위해 그런 분소가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글쓰기교실에 상담 받으러 가는 학생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양호환(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 수업 중에 그 클래스를 전부를 보낸 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상담인력으로 봐서는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기초교육원에도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우리는 비교과로 한

다는 차이점 이외에 말씀 드렸듯이 서비스를 보다 특화시켜서 글쓰기에 아주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상담 지도도 할 예정이고, 또 글을 굉장히 잘 쓰는 학생에게는 심층 지도를 통하여 글쓰기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재영(사회과학대학 부학장)** : 아까 글쓰기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매뉴얼 같은 형태로 만드실 수 없으신가요? 수업을 듣고 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레퍼런스로 보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표준화해서 선생님마다 또는 특정 전공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도 만들고 또 필요에 따라 전체적인 통합 매뉴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형(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 : 글쓰기 통합 매뉴얼은 아니지만, 리포트작성법 일반에 관한 자료집이 있고, 또 특강별로 강의안이나 자료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호환(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 글쓰기 윤리, 인용이나 표절과 관련한 연구가 올해 말에 나옵니다. 그밖에 지적해주신 그런 매뉴얼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형(행정대학원 부학장)** : 저는 특히 필요를 많이 느끼는 것이 대학원생들 논문 작성법 특강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중국 학생들이 한국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사실 온라인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오프라인 베이스로 튜터쉽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특강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각 학과별 특성에 맞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충실하게 진행이 잘 된다면 필수 학점으로 지정하거나 강좌를 꼭 들어야 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

용이 학과별 특성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강의하시는 강사나, 지도하시는 분들의 인력 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수형(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한 학생이 개인적으로 여러 번 찾아와서 지도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외국인들에게 이걸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에 한 외국인 학생이 수습 회에 걸쳐 상담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개별적인 것입니다. 만약 모든 외국인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면 글쓰기 교실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원생을 위한 학위논문 작성법 특강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과대학에 계신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진행합니다. 논문 작성 일반론에 관해서 글쓰기교실 연구교수가 강의를 한다면, 연구방법론 등에 대한 강의는 각 단과대학별로 선생님을 모시는 식입니다.

**김창민(인문대학 부학장)** : 여기 글쓰기 지도가 국문과에서 하는 교양 수업에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주는 차원인가요?

**양호환(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찾아오는 학생들을 학생의 능력과 요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받는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김창민(인문대학 부학장)** : 거의 개별지도군요. 좋은 서비스가 많은데 기존 교수보다는 신입교수나 신입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5. 기타 토의 내용

**이건우(공과대학 부학장)** : 최근 국제교류의 확대로 비디오 컨퍼런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CTL에서 비디오 컨퍼런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지요?

**민혜리(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지원부 연구교수)** : 61동 아래층에 20석 규모로 하나, 83동에 50석 정도, 43-1동에 30석 정도 있습니다. 이 세 건물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건우(공과대학 부학장)** : 저희가 올해 2학기부터 동경대와 공동 강의로 네 과목을 진행하는데 테크니션이 외국어가 잘 안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꼭 여기 시설을 쓰지 않더라도 진행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영(사회과학대학 부학장)** : 좀 부차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경제학부에는 대형 강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의실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83동은 파워포인트를 쓸 수 있는데, 200명이나 되는 강의실에 칠판이 아주 작아요. 그러다보니 뒤에 앉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앉아서 필기를 하면 칠판으로 나오는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여기서 지원하십니까?

**양호환(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 그러면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전자칠판 같은 거죠? 강의실 개선에 관한 사항은 학사과에서 관리하지만 83동 관리는 CTL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차재도 저희가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환(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 CTL 서비스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단과대학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강사료 등은 공동으로 부담

하고 그 외의 것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그것이 가능하고 심지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지도 선생님들께도 약소한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특성화 사업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 현재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 논문 작성법 워크숍 같은 경우는 글쓰기교실에서 반드시 상담을 거쳐야만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다고 하거나 학부생 수업도 리포트 제출 전까지 글쓰기교실에서 상담을 받아오라고 말씀해 주셔도 CTL 프로그램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TL은 교수님의 콘텐츠 개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하겠지만 미리부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꼭 수업용이 아니더라도 교육용으로 도움이 되겠다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학장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따끔한 충고 부탁드립니다.